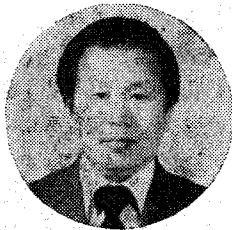


— 提 言 —

# 新技術特許品の 海外進出方案



申 錫 均

〈韓國新發明研究所長〉

## Ⅰ 머리 말

몇 해前만 하더라도 우리國民에게는 “戰爭” 하면 六·二五나 월남戰 따위의 武力戰爭같은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外交戰爭이니 貿易戰爭이니 이밖에 各種 전쟁들이 다 있었지만 전쟁의 성격도 人類의 歷史와 더불어 變遷되어 가고 있다.

最近에 와서 뚜렷하게 성격을 달리한 形態로 本格的인 새로운 양상을 띄고 나타난 것들 중에는 輸出戰爭, 特許戰爭같은 것을 들수 있을 것이다.

過去에 우리는 무역전쟁이라는 平和적이고 平凡한 用語를 썼었지만 近來에 와서 그 用語自體가 우리에게 實感이 나지 않는다.

우리國民이 보다 잘 살수있는 것은 그 方法이 여러 가지 있었으나 그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많은 外貨를 벌어들여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問題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어떤 方法으로 수출하느냐? 政府나 業體가 다같이 恒常 研究했고 實踐해왔다.

그 중에서도 商品의 수출, 人力의 수출, 技術用役의 수출, 原料의 수출등이 主宗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주종은 앞으로 더욱 發展되어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도 現在의 主宗品에만 依存할 것이 아니라 先進外國과 같이 새로운 輸出品을 繼續發掘해내야할 것이다. 그러나 새롭고 健全한 수출품을 발굴해내기란 그렇게 용이한 것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 後進國이 先進國을 따라가는 메에도 여러가지 方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선진국의 같은 方法을 받아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直言의으로 表現한다면 “模倣”의 段階를 부끄럼없이 거치는 勇氣와 솔기가 必要하다고 본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것을 모방한다면 그것이 매우 유치해보이고 비굴해보이는 것같이 評價하거나 경솔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分野가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음을 明白히 해야할 것으로 본다.

“모방의 단계”를 지나면 반드시 “自立的 단계”로 前進시켜 나가야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獨創的 段階”로 飛躍시켜야 된다. 즉 여기서 모방이란 獨창적단계로 비약하기 위한 디딤돌로만 存在해야 된다.

## Ⅱ 特許戰爭의 意味

世界는 날로 激進해가는 國際的인 “수출전쟁”에서 유리한 高地를 장악하기 위하여 “특허전쟁”이라는 새로운 戰線을 펼쳐 나가고있다.

특허전쟁? 좀 異常야릇한 전쟁이다. 왜냐하면? 총알 하나쏘지 않고 相對方을 攻擊하고 먹어들어가는 武力戰이 아닌 “아이디어전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곳에 關心度가 한심할 程度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것도 그럴것이 韓國의 特許制度의 역사가 짧았고 國家的인 豫算의 뒷받침도 문제가 된다고 본다.

때문에 국민들에게 아직도 특허전쟁이라는 用語自體도 매우 생소할 정도며 이 분야에 關係된 人士들만이 느껴질 정도이고 보면 앞으로 큰 문제거리라고 본다.

우리도 外國 여러나라들과 特許協定이 이룩된 뒤로는 外國의 특허들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기 始作한 이때 外國것을 받아들이기만하고 國內特許를 外國으로 내 보내는 것이 뒤진다면 필치않은 將來에 후회하는 때가 올 것이 틀림 없다고 본다. 좀 늦은 感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특허전쟁의 準備를 積極的으로 서둘러야될 것이다.

美國의 IBM社에서는 美國 國內特許出願件數가 5,100件일때 外國의 特許出願件數는 12,000件이라는 壓倒的인 특허전쟁의 武器를 生産해 내고 있다.

즉 [科學+發明=輸出]이라는 보다 새로운 新技術特

許品の 海外進出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約 130個나 되는 國家들이 저마다 自國의 實情에 맞는 特許制度를 運營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특허제도들이 自國內의 産業發展에 만 기여해 왔지만 근래에 와서는 次元을 달리하여 수출전쟁의 一部를 擔當하는 새로운 특허전쟁이라는 양상을 갖추기 始作했다고 본다.

총을 쓰지않고 싸우는 전쟁! 外貨만을 걸우어가는 전쟁, 가장 紳士의(?)이면서도 슬기롭고 무서운 전쟁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우리도 이 특허전쟁에 정부와 업체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對備해야 할 것이다.

### ③ 特許戰略의 效果의 方法

과거의 전쟁은 전쟁에서 패배 당하면 領土를 빼앗기거나 主權을 박탈 당하거나 物質을 빼앗기거나 植民地化 해버리는 등 갖가지 形態의 結果를 招來했었지만 萬一에 앞으로 이 특허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여기에 달려드는 국민은 “特許植民地”라는 지경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萬一에 어떤 국가나 新技術面에서 극히 落伍되어 선진국의 “특허식민지”로 전락된다면 우선은 莫大한 의화를 每年支出하게 될뿐 아니라 수출전쟁에도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한가지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아니될 것은 보다 많은 수출과 國家의 發展을 위해서는 先進外國의 特許新技術을 選別的으로 대담하게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특허전쟁에서는 “工業所有權”이라는 무기를 使用한다. 때문에 특허전쟁에서 勝利하기 위하여서는 보다 強力하고 效果의인 公認소유권으로 武裝하지 않으면 안된다.

새롭고 강력한 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商標權을 自國은 물론 市場性이 有望한 外國에 登錄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數많은 사람들이 外國에 특허를 出願하고 이것이 등록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外國에서 특허를 얻기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스포츠맨들의 國內競技와 外國競技에 견주어 볼수가 있다.

그 理由로서는 (첫째) 外國에서도 自信이 있어야 하며 (둘째) 國內에 比하여 많은 經費가 所要되며 (셋째) 새로운 經驗의 體得 (넷째) 未知에서 오는 不安感 (다섯째) 言語 및 外國의 異質感의 장애등을 들수 있다

그러나 以上과같은 것들은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 차근차근 解決策 나가면 될 것이다.

〈첫째〉 新規性과 進歩性與否를 嚴格하고 細密하게 檢討한 뒤 自國內特許를 출願하되 有能한 辨理士를 選定한 뒤 일을 進行할 것이며 신속한 先出願에 의해 國內出願番號로서 外國出願當時 優先權主張의 資料를 만들고, 繼續 發利되어 나오는 國內公報는 물론 外國公報를 銳意檢討하여 出願內容의 補正研究등을 계속할 것. 自國內出願이 完了되었으면 大部分 外國에는 우선 권주장이 되므로 秘密保障에 지나친 神經을 쓰지 말고 그 發明品이 屬하는 專門分野의 人士나 業界 또는 先輩들에게 自己가 발명한 內容의 市場性등을 事前 打診해 본뒤 자신이 생기면 外國출원을 自國內出願日로부터 1年以內에 外國特許廳에 接受해야 하므로 辨理士를 되도록 速히 選定할 것.

〈둘째〉 外國출원은 나라에 따라 들어가는 經費의 정도가 相異하고 국내보다 數倍의 費用이 所用되므로 변리사와 事前에 相議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市場性이 좋으면 經費가 좀 들더라도 特許權을 확보해 둘 것.

〈셋째〉 국내출원도 初歩者는 그렇지만 특히 外國출원의 경우 個人出願을 생각지 말고 믿음만한 변리사에게 外國출원을 依頼한뒤 特許法律事務所를 통해 새로운 體驗을 체득해 나가면 될것이다.

〈넷째〉 未知에서 오는 不安感을 갖지 말고 有能한 변리사의 處理過程을 信任하고 各種 出版物등을 통해 外國特許關係의 知識을 계속 쌓아 나갈 것.

〈다섯째〉 그밖에 언어 및 外國의 이질감등에 대해서는 변리사에게 委任하고 安心할 것이며 특허가 外國에서 나온 다음에는 그나라에 관한 特許關係 즉 特許讓渡 및 實施權制度나 그 나라 旅行등에 필요한 會話등을 공부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 ④ 發明特許權의 實施問題

다음 단계로 外國에서 우리가 특허권을 획득했을때 어떻게해야 될 것인가? 外國에서 확보된 특허권을 活用시키는 方案을 강구해야 한다. 自國內에서도 특허권을 획득한 후에 企業化를 시킨다는건 이밖에 만 방법으로 어떻게 實施化하느냐하는 問題는 發明人들에게는 苦惱거리지마는 우리가 外國에서 특허권을 확보해 놓고도 그것을 외화로 바꾸어낼 자신이 없다면은 애당초부터 고려해야될 문제이겠지만 일단 확보된 특허권을 외화로 바꾸어 내는 단계를 강구해 나가야 될 것이다.

〈첫째〉 대부분의 경우 外國에서 특허가 확보되면 公報등 刊行物에 의해 外國에서 알려지면 外國에 散在해 있는 몇개의 特許權 仲介業體같은 곳에서 편지가 날아온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反應이라고 본다. 그것은

왜냐하면 외국에서 그 정도 關心을 갖고 企業性에 관한 基礎調査를 했다는 證據로 볼수 있기때문이다. 그들은 대개 특허권을 賣渡 또는 實施權을 許與한뒤 그쪽 50% 이쪽 50%式 分配하자는 방법을 取하고 있다.

그러나 最初부터 이런 條件에 달려들어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그들은 契約書內容이 一方的으로 그들에게 有利하게 印刷돼 있을뿐만 아니라 特許權者가 생각한 것과는 매우 距離가 멀기때문이다.

仲介業者의 편지에 대하여는 좀더 두고 연구해보자는 回信을 해두고 最後手段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들깨》대개의 경우 후진국의 특허권을 선진국에서 실시하려던 國際發明品 展示會나 이밖에 各種專門分野의 展示會를 이용하는 예가 많다. 수많은 특허권들이 이러한 機會에 이루어지는 것이 實證되고 있다.

외국에다 특허권을 확보해 놓고 자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하여 그것을 수출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지만 그것은 특허된 새 기술을 수출한다기 보다는 상품을 직접 파는 결과가 되며 一長 一短이 있다고 본다. 물론 一般商品보다는 法的으로 매우 有利한 조건에서 可能할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도 특허권을 그대로 新技術로서 양도 또는 실시해 버리는 것이 가장 便利하고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허권을 新技術商品으로서 그대로 의뢰로 바꾸어내는 과정이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주저할 것만도 아니다. 정부와 업체와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協調한다면 우리도 외국에 특허권을 신기술로서 販賣하는 길을 손쉽게 개척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 개최되는 各種展覽會에 외국에서 확보된 특허권을 展示, 出品시키는 문제가 가장 時急한 것이다.

《셋째》發明家나 특허권자가 직접 외국을 訪問하거나 書信으로서 該當分野의 메이커에게 특허권을 제시해 보는 방법도 있으나 이것은 극히 消極的인 방법으로 본다. 그것은 왜냐하면 自由競爭體制에서는 一般적으로 널리 公開한다는 것이 重要하기 때문이다.

《넷째》외국에서 획득한 특허권을 外國新聞이나 雜誌에 廣告로서 그 뜻을 公開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약간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百聞而不如一見이라는 기회를 公開의으로 만들수가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재정만 허락한다면 이것도 한번

試圖해 볼만한 것으로 본다.

《다섯째》외국에 있는 親知나 變理사를 指定하여 몇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소극적인 방법이지라는 경비를 節約하는에는 약간의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이밖에도 다른 몇가지 소극적인 방법이 있지만 이상 다섯가지 방법을 各國의 사정을 考慮하여 調和시키는 綜合的인 방법을 더욱 研究해나가야 할것이다. 특히 美國같은데는 法律的인 면에서 專門的인 분야의 辯護士나 變理사의 자문을 求하는 것도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 5 맺는 말

結論的으로 말하면 新技術特許品の 海外進出方案으로서의 그 初步的段階로 맨먼저 경험을 쌓기 위해서 各種國際發明品博覽會, 展覽會. 展示會에 적극적으로 參加시키는 방법을 정부가 권장해 나가야 할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特許廳에서는 加급적 많은 發明을 외국에 特許出願하도록 業界와 發明界를 유도해 나가는 政策的이고 行政的인 뒷받침을 더욱 강력히 制度的으로 마련해야할 것으로 안다.

물론 外務部에서는 間接的으로나 直接的으로 發明品の 國際展覽會參席者들의 旅券發給에서부터 外國駐在公館職員의 活動에 이르기까지 現在보다도 더욱 協調的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것이고, 政府各部處의 橫的인 支援策이 있을때 發明계와 업계는 새로운 次元에서 勇기를 갖게될 것이다.

한件的인 商標에서 한件的인 특허권에 이르기까지 외국에 등록된 公業소유권이야말로 외국과의 수출전쟁에서 絕對的인 對抗要件이되는 특허전쟁을 이겨내는 唯一한 무기라는 것을 생각할때 이 문제는 비록 전문분야인 특허청에서만 관심을 가질것이 아니라 정부와 온 국민의 關心事가 되어야 한다.

특히 특허청에서는 우수한 公業소유권의 價値가 있는 國內出願中에서 외국에 내놓을만한 출원을 발굴하여 政策的으로 뒷받침해주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國土가 좁고 入口는 많아지고 地下資源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國內產業發展에는 물론 외국에 신기술(아이디어)을 進出시키는 政策을 國家百年之大計의 一部로서 그 出發點을 民族的인 차원에서 내다보아야 할 것이다. ♪

頭腦資源開發하여 技術人力養成하자!